

생명의 말씀



김상웅 목사

· 예하성 중경총회장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지도자가 되었고, 신앙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뛰어난 지혜자, 지도자, 승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히 10:38)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영웅들은 해례가 많아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패망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11:2-8) 부정한 동물 고기(나레 11:10-12)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호 9:3, 고전 10:27-29)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께 속한다는 뜻이 되듯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속한다는 뜻이 되기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고우리로 먹고 마신다면 세상과 구별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했던 것입니다.

2. 열흘 간의 시험
단체 생활에서 더구나 왕의 교육생들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거역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책임자인 환관장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의 얼굴을 비교하여 자기들의 얼굴이 더 좋으면 자기들의 요구대로 채소와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대조로서 채소가 고기보다, 물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고 마시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채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왕의 진미가 우리의 눈앞에 놓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특히 한창 자라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 청년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요? 크리스천은 성경이 금하는 음식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열흘간의 실험 결과

1) 다니엘과 세 친구

음식에 대한 테스트 결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나아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감동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재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2) 지혜와 총명에 대한 테스트

3년의 훈련기간이 끝난 후, 그들은 지혜와 총명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는데, 네 청년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열배나 더 뛰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외에 모든 이상과 몽조(환상과 꿈)를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치하는 위치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적은 일부터, 예를 들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단 1:8~16)

동정

이승구 교수 예배제재 강경입장



경기도에 이어 지난 3월 20일(금) 서울 시도 예배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분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까지 가장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해 온 분재부 장관이 대통령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야 한다"라고 했다.

예장통합, 3월 29일 금식기도일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3월 29일을 '코로나 19 사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일'로 선포했다. 총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온 창조 세계에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전국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길 원한다"고 전했다.

북기총 북한 종교자유 없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철립 목사, 이하 북기총)는 지난 3월 20일(금)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와 지하교회 유무 논란에 대한 북기총 입장문을 발표했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목회자들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한목사의 주장에 대해 "목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북한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가기연 '코로나19 방역봉사단'



경기도 가평기독교연합회(가기연, 회장 김성욱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봉사단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21일(토) 밝혔다. 가기연 방역봉사단은 보건소 및 가평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기연 문화체육부장 김길식 목사를 중심으로 회장 김성욱 목사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예배는 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월 18일 신천지의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자들과 여론 관계자들의 "안심하라"는 식의 말은 그야말로 공허한 그릇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슈퍼 전파자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시대 가장 극렬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로, 그들의 특수한 종교 의식과 조직원 간연계로 인하여 급격하게 번지게 되었다. 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 7,134명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4,482명이다. 이는 62.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또 집단 발병자 5,687명 가운데 신천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9.1%이다. 특히 대구를 비롯하

여 영남지역은 신천지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독교의 주일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체중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말은 '종교'이지 실상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유는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독교의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주 원인이라고 되는 듯한 결정이다. 즉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2월부터 자발적으로 예배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가 많은 방역에 충실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와 기존의 기독교를 싸잡아서 강제적인 '명령'으로 예배를 중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버리기 바란다.

9일 현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신천지의 위장된 신도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 교회에 예배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매우 확실적이고,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무엇인가?

여기에는 각 언론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자 보도에서 '경기도 교회 56% 2천 868곳 집회예배 강행'이라고 보도한다. 교회의 예배는 없던 것을 갑자기

신설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이미 오랜 동안 약속으로써, 계속 드려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강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저의로 보인다.

중앙일보도 7일 보도에서 '주말 예배 자체 당부했는데 일부 교회는 이번 주도 강행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다. '강행'한다는 것은 '강제로 시행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를 마치, 일부러 행하는 것처럼 비취치게 하려고 한다.

한겨레는 8일자 보도에서 '집단예배 일시 자체 호소에도 일부 교회 강행 논란'으로 이어 논란을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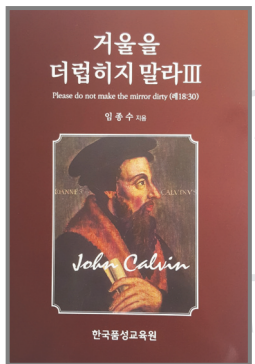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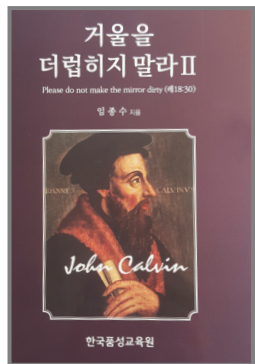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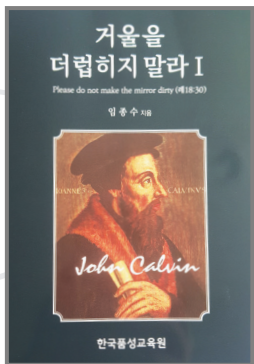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만약 언론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집단 모임으로 간주하여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국민

들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지하라는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외눈박이의 시각이며, 교회를 흠집 내려는 저급한 시도이다.

우리 기독교는 선교 135년 동안 한결 같이 예배를 드려온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마치 교회 때문에 질병이 크게 확산될 것인데, 교회가 일부러 면피( 면患)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한때에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독교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정부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마치 '취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